

#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말교실을 통해 얻은 것)

이름	김지연
전공	전자시스템공학
학번	20241406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type="checkbox"/> 글말특강 (-회차)

저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솔직한 성격과 다정하지 못한 말투 때문에 가끔 소통에 있어 오해와 다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며 점점 말하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었고 말수가 줄다 보니 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글말특강에 더 흥미를 가지고 집중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감을 잘하려면?'의 4번째 주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위로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 또한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물어보고,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 공감하며 연습 해봄으로써 제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엄마와 크게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까칠한 말투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으셨다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 때 저는 어린 마음에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엄마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소통을 하지 않고 약 일주일 동안 혼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마음 쓸 일도 없어 마냥 좋았지만 점점 힘들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때 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관계와 사회성, 소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7번째 주제인 '오해없이 소통을 잘하려면?'을 통해 말할 때는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데, 들을 때는 상대방의 표현을 듣고 의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단어 하나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에 대해 항상 염두 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에서 배운 인정, 지지, 격려, 칭찬, 응원, 축하의 상대방의 에너지를 살아나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며 호감을 얻고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말특강을 통해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일상 속 말하기에 있어서 사용한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즐거운 대화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마음과 말이 통하는 말하기를 성취하고, 더 나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